"독립운동 지지한 후세 다츠지에게 감사"

군산 동국사,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 63주기 추모제

일본인이면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인권변호사 후세 다츠지의 63주기 추모제가 군산 동국사에서 봉행됐다.

동국사(주지 종걸)은 9월 13일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 부주지 니요카 쇼신 스님, 정영준 후세다츠지인권평화기념사업회장, 후세 다츠지 외손자인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 김귀동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를 봉행했다.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이 각각 한국과 일본식 추모의식을 집전한 데 이어 추모회는 애국가 봉창, 헌화, 후세 다츠지 약력소개, 관련 영상상영,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후세 다츠지 선생은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로 평생에 걸친 인권 활동, 특히 한일 문제에서의 활동은 내 주제인 '한일불교 교류'에도 큰 용기를 주고 있다"며 "종교와 사법에 국경이 없으며 함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전망하며 후세 다츠지 선생의 정신을 채찍으로 삼아 더욱 정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1953년 할아버지가 72세로 세상을 떠날 때 히비야 공회당에서 열린 추도식에 남과 북을 넘어 많은 한국인이 참석한 것을 기억한다"며 "추모제를 열어준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조선인들을 변호하며 조선의

독립운동 열사들 변호하며
일본정부 비판한 다츠지
1953년 72세로 타계했지만
대한민국 건국훈장 추서

소작농민을 옹호한 것은 동학농민 학살과 명성황후 시해 등 역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끼친 일본국의 일원으로 배상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일제 침탈의 중심이었던 군산시에서 후세 다츠지의 업적을 회고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인 후세


종걸 스님과 이치노헤 스님, 오이시 스스무 前 일본평론사장 등이 9월 13일 동국사 법당서 열린 후세 다츠지 63주기 추모제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다츠지(1880~1953)는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됐으나 법률의 미비점과 적용에 회의를 느껴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11년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함'이라는 글을 통해 한일합병이 일제의 침략임을 규정하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1919년 재일조선유학생들이 발표한 2.8독립선언의 주체인 최팔용, 송계백 등을 변호하고, 1924년 도쿄 궁성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 의사의 변호를 맡았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때는 일본정부와 군부에 의한 유언비어로 인한 사건임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을 때 나주지역 농민을 위해 510만평의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광복 후에도 한신교육투쟁, 도쿄 조선고등학교 사건 등 재일 한국인 관련 사건을 도맡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일본인으로는 유일하게 200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과 명절음식 나눈 4대 교단

선운사 등 소외계층 300세대에 음식 전달
종교계 함께하는 화합 · 희망프로젝트 일환

선운사를 비롯한 고창지역 4대 교단이 민족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명절음식을 나눴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 원불교 고창지구 · 천주교 고창성당 · 고창 중앙교회 등 4대 교단은 9월 9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햅쌀, 송편, 전 등 명절음식을 준비해 고창지역 어려운 이웃 300세대에 전달했다.

고창 여성회관 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선운사 선재봉사단을 비롯한 각 교단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직접 명절음식을 마련해 지역 홀몸 어르신들과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종교계와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은 "4대 교단이 함께 명절음식을 준비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종교간 화합에


선운사 선재봉사단 스님과 재가자들이 이웃과 함께 나눌 명절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있다.

도 도움 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선운사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천사, 질곡 역사 담은 사적비 제막

9월 22일, 사부대중 200여 명 동참

신라 진성여왕 원년 창건 이래 2번의 폐찰위기와 6번의 중창 등 부침을 거듭한 강천사의 역사기록을 정리한 사적비가 제막했다.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9월 22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강천사는 신라 진성여왕 원년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이후 1100년간 지역 대표 도량으로 명성을 이어 왔으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2번의 폐찰위기와 6번의 중창을 겪었다. 최근 중창기록은 1959년 영월당 영신 스님이 한국전쟁 당시 공비 토벌작전으로 폐찰된 강천사를 복원한 것이다.

이날 종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강천사의 기록들을 한자리에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온 선지식의 의지와 노고를 이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에 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적비 건립에 오랫동안 힘을 모아준 사부대중의 노력을 치하했다. 스님은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포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전법도생의 길을 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적비는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짓고,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의 감수를 거쳐 서예가 서홍식 선생이 글을 썼다.

한편 군산 성불사 종명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사적비 제막에 앞서 강천사 부도전서 영월당 영신 스님 부도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중 호흡 위해 불교도 변할 때"

호남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 무등 스님

시대신주(是大神呪) 시대명주(是大明呪) 시무상주(是無上呪) 시무등등주(是無等等呪)….

불자들에겐 익숙한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다. 이 중 무등등(無等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는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인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으로 이어진다.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無等山) 역시 이 같은 의미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다. 누구나에게 열린 차별 없는 산. 이런 무등산 왼쪽 기슭에 광주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너릿재를 넘기 전, 천룡사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그런데 주지 스님 법명이 공교롭게도 무등(無等 · 사진)이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장이기도 한 무등 스님은 도심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서 지내지만 작은 사찰서 다양한 포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찰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불사에 많은 힘을 쏟을 겁니다. 하지만 천룡사는 인재불사가 최우선입니다. 절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신도들이 사찰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룹니다."

천룡사를 대표하는 신행활동은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신행기도다. 사찰 순례와 더불어 순례지서 이뤄지는 신행기도는 현재까지 110회가 넘었다.



올해 10년 순례의 회향을 인도서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외에도 다라니 독송기도와 매주 진행되는 경전공부 등은 소규모 사찰에서 실시하는 신행활동치고 제법 체계적이다. 특히 무등 스님은 신도들의 원활한 신행을 위해 시간도 대중에 맞췄다.

"아무래도 사찰이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 신도들이 이른 시간에 기도에 동참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 편하게 신행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무등 스님은 자신의 법명처럼 모두가 차별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자연스럽게 대중과 소통하고 그 안에 녹아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호흡하고, 계율 역시 현대사회에 걸맞게 재해석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지 말자'가 주를 이루는 계율을 '이렇게 하자'고 적극적인 선행 유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있겠죠."

이처럼 대중포교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무등 스님은 '사진'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사진을 통한 포교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광주사진작가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불교연합회 사진문화기획단장을 맡아 봉축사진전을 꾸준히 열고 있다. 대중에 불교문화를 알리는 한편 광주불교계의 역사를 기록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그동안 불교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취약했습니다. 선사들의 많은 가르침은 구전에 집중됐고, 수행에 중점을 두다보니 부차적인 것들에 크게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개인 하나하나가 역사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불교역사기록원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찰 주지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또 진리의 불법을 전파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리는 무등 스님. 스님의 노력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인드라망 역할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양행선 광주 전남지사장

